

# 운동주와 함께 한 듯 북간도의 별 헤는 밤

탄생 100주년 기념 광주일보·시산맥 '문학기행'

시인 40명, 발자취 따라 여행  
생가 표지석엔 조선족 시인  
아직도 이방인 인상 안타까워  
모교선 후배들 자부심 오롯이  
연변시인들과 '시낭송의 밤'도



북간도 용정은 구한말 독립투사들이 이주해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용정 명동촌에 있는 운동주 시인 생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어쩌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화상’ 중에서)

운동주 시인의 생가는 북간도 용정(명동촌)에 있다. 생가에는 작은 우물이 있다. 정자각형 우물의 모형을 정교하다. 보기에도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돼 보인다.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면 고인 물이 보인다. 우물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얼핏얼핏 비친다. 맑은 날에는 들여다보는 이의 얼굴도 보일 것 같다.

생가 뒷마당에는 앵두나무가 서있다. 푸른 잎 사이로 드러난 붉은 앵두는 보색의 효과 때문인지 유독 볼거리를 해 보인다. 적오하고 한가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고적하다. 시인은 어디에 있는가. 사슴처럼 해맑고 순진무구한 미소를 짓던 운동주는 어디에 있는가.

광주일보와 ‘운동주 서시문학상’을 공동으로 제정한 기간 ‘시산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시인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40여 명의 시인들이 참여해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문학기행은 운동주 시인의 생가와 묘지, 모교인 대성중학교 등 시인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을 찾아 그의 시 정신을 기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기행에는 문정영 시산맥 대표, 김필영 시산맥 시인협회 회장, 지난해 제1회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미희 시인(미국 달라스 거주)이 참여했다. 또한 운동주 서시문학상 제전위원장 이성렬 시인 (경희대 교수), 운동주 서시해외작가상 제전위원장 서영택 시인 (대전실업주식회사 대표),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2016) 진혜진 시인, 시산맥이 배출한 최연수·정시마·조숙향 시인, 평론가인 전혜수 동국대 외래교수 등이 참석했다.

북간도 용정은 구한말 독립투사들이 이주한 곳이다. 항일투사들과 이주민들은 해방을 위해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근대 민족교육을 활발하게 펼쳤다.



대성중학교에 있는 운동주 시비.

운동주 생가는 용정시 명동촌에 자리한다. 1994년 용정시 자치정부와 용정시문학예술연합회에서 복원했다. 2007년 연변조선족 자치주 문화재 보호단위로 지정됐고, 2014년 표지석을 세웠다.

생가는 새롭게 단장이 됐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의 시인’ 보다는 ‘조선족 시인’의 집 같은 느낌을 주었다. 운동주는 죽어서도 ‘독립된 조국’의 시인이 아닌, 여전히 이역만리를 떠도는 ‘이방인의 시인’으로 남아 있는 듯 했다.

시인의 생가 바로 옆에는 옛터가 있다. 그리고 옛터 옆에는 작은 교회와 있는데 아담하다 못해 협소하다. 예배당에는 당시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손때 묻은 강대상, 십자

가 있었는데 옛 교구들은 무정한 시간의 흐름을 대변한다.

운동주 생가를 둘러보고 당도한 곳은 시인이 묻혀 있는 명동촌 공동묘지다. 아드막한 언덕에 자리한 공동묘지에는 수많은 묘가 자리했다. 옷자란 풀들 사이로 한 그루의 살구나무가 보였는데 묘는 그 옆에 있었다. 묘지는 비교적 잘 관리된 상태였고 주위로 꽃다발과 기념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묘 앞에서 간단한 추모식이 거행됐다. 시인들이 광목천을 한자락씩 잡고 묘를 빙 에둘러 쓰고 시인의 혼을 기렸다. 묵념과 헌화 등 간단한 의식에 이어 시인들의 시낭송이 진행됐다. 서영주·김미희 시인 등이 ‘자화상’을 비롯한 운동주의 작품을 낭송했다.

시인들은 운동주 시비가 있는 대성중학교도 방문했다. 운동주는 원래 은진중학교에서 공부하다 숭실중학교로 편입했다. 이후 은진중학교를 비롯한 5개의 학교가 대성중학교로 통합됐는데 대성중학교에는 운동주가 한때 공부했던 교실이 복원돼 있다.

교사 앞에는 ‘별의 시인 운동주’라는 동상과 대표작 ‘서시’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다. 학교는 운동주가 모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운동주 교실’이라고 명명된 공간에는 당시의 모습이 재현돼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교실 어딘가에서 시인이 해맑은 얼굴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방문 일행은 연변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도 개최했다. 연변대주호텔에서 연변시낭송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한문인 시낭송의 밤’에서 양국 시인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운동주 작품을 낭송했다.

연변시낭송협회에서는 오영옥·김정자 시인이 각기 ‘별 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을 낭송했다. 시산맥에서는 환경용·최연수 시인 등이 ‘눈오는 지도’, ‘흰 그림자’ 등을 낭송했고 이화영 시인은 ‘운동주 시인의 생애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한 송미자 연변시낭송협회장은 ‘아리랑’을 불러 참석한 문인들의 가슴을 울렸다.

문정영 시산맥 대표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지만 시인 운동주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미흡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운동주 시인의 위상이 회복되고 그의 정신이 널리 선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국 용정=박성천기자 skypark@



‘연비어약(鸞飛魚躍)’

## 한학자 박경래 ‘북양 한문첩’ 출간

22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네살 때부터 한문을 배운 박 원장은 70년간 ‘유학’(儒學)의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특히 나주 문화원의 ‘금성일기’ 번역

조순 전 국무총리는 그를 이렇게 평했다. “항상 불철주야 독서만 해왔기 때문에 필필치는 낙타 무릎처럼 굳살이 박혔다. 그 곁과 난해한 고문(古文)을 혹 듣거나 물어오면 언제나 명확히 해설해 주고 고문번역에 전념하여 백여권의 번역서를 남겼으나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장흥 출신 한학자이자 서예가 북양(綠洋) 박경래(72·사육양고문연구원장·사진) 선생의 서예 작품을 총망라한 ‘북양 한문첩’(綠洋 翰墨帖)이 출간됐다. 출판 기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조순 전 국무총리, 장병완 국회의원, 이돈홍 학정서예연구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

박 원장은 한 두 가지 서체에 의존하지 않고 전서(篆書), 예서(隸書),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 금문(金門), 갑골문(甲骨文) 등 ‘칠체’(七體)를 모두 익힌 서예의 대가다.

300여페이지에 달하는 책에는 전서, 예서, 행서 등 300여점이 실렸으며 ‘대학’, ‘중용’, ‘서경’, ‘주역’ 등 인문을 밝히는 교훈과 명현들의 시를 주 소재로 삼은 글들이다.

한학자였던 조부의 가르침에 따라

역을 시작으로 ‘귀휴집’, ‘석전록’, ‘청광집’, ‘죽고집’, ‘겸재집’ 등 우리 지역 의 문집 100여종을 번역·출간, 선인들의 학문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무엇보다 사육양고문연구원을 설립해 후학들에게 꾸준히 한학을 가르치고 고문 번역작업을 전개하는 등 한 학의 계승에 정성을 쏟아왔다.

박 원장은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귀중한 문헌이 산재해 있지만 시간과 인력의 어려움으로 계승 작업이 활발하지 못하다”며 “이 문헌들을 번역·편집하고 학술논문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학문을 계승·발전 시키는 데 마지막 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조선대 국문과 초빙 교수를 역임했고 한국국학진흥원 자문위원, 한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223-22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누리카드 남도여행 프로그램 운영

5가지 테마 20개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문화소외계층이 ‘문화누리카드’로 남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2017 전남 통합문화이용권 여행프로그램은 ▲힐링 남도섬 ▲체험관광 ▲해양레포츠 체험 ▲남도축제 ▲지역사랑 5가지 테마로 총 20개가 운영된다.

‘힐링 남도섬’은 섬 탐방프로그램으로 강진 가우도, 완도 보길도, 신안 증도에서 해안 트레킹, 숲길 산책, 운선

도 유적지·식물원·소금박물관 관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체험관광’은 여수·구례·함평·해남·나주·담양 5개 지역에서 지리산 온천체험, 해남 두륜산케이블카, 해수점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익사이팅(exciting!) 해양레포츠’는 익스트림 보트 등 해양 스포츠를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으며, ‘남도 축제’는 장흥 물축제,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등 지역 축제와 함께 관광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61-280-5845~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월급착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비오는날 9,900원)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상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